

KCC, 어린이용 친환경 바닥재 출시



KCC(대표 정목익)는 어린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는 뽀로로 캐릭터가 적용된 아동용 친환경 바닥재를 출시했다고 10월8일 발표했다.

해당제품은 4.5mm의 경보행 바닥재로 어린이 안전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탄력 쿠션으로 충격흡수 기능이 뛰어난데다 보행감이 좋아 활동이 왕성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제품이라고 KCC는 강조했다.

환경호르몬 배출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Phthalate)계 사용을 배제하고 친환경 가소제만 적용해 피부에 직접 닿아도 해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KCC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뽀로로 디자인에 친환경성을 강조해 아동용 바닥재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10/08>